

# 포천시족구연합회 會長에 양재설 씨

## 부회장에 정운준, 조헌철 씨 임명



7일 제2대 포천시족구연합회 회장직을 맡은 양재설 회장이 박일서 포천시생활체육협회회장으로 부터인증서를 받고 있다.

양재설 포천시족구연합회 부회장이 제2대 포천시족구연합회 회장에 선임됐다.

포천시족구연합회는 7일 여성회관에서 제2대 포천시족구연합회장 취임식을 갖고 양재설 회장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은 박일서 포천시생활체육협회회장이 양 신임회장에게 인증서와 단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최재두 씨와 김진걸 씨에 대한 박윤국 포천시장의 표창패 수여, 양 신임회장의 정운준, 조헌철 부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양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장원 전 회장이 24개월동안 닦아 놓았던 빛나는 전통을 계승시

키고 발전해 나가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화 단결이 있을 때 더욱 더 발전하는 족구연합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윤국 포천시장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양재설 회장이 족구연합회를 맡아 기대가 크다"며 "회원들의 열렬한 후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포천이 족구의 명문 도시가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사를 통해 말했다.

한편, 포천시족구연합회는 2002년 창설됐으며 경기도지사 족구대회에서 2연승을 거둔 바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포천중 역도부 양수근 문광부장관 배 도대표선발

## 유규일 선수 등 5명 입상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된 문화관광부장관 배 전국학생역도대회 도대표 선발전 및 경기도역도선수권대회에서 포천중 역도부(감독 정일범)가 양수근 선수를 비롯해 5명의 입상자를 내며 선전했다.

총 7명이 출전해 45kg급 유규일이 인상, 용상, 인상상 합계 각 부

분을 석권해 3관왕에 올랐고, 50kg급 유용일이 은메달 3개, 62kg급 양수근이 금메달 3개, 69kg급 진명호가 동메달 3개, 94kg급 강준이 동메달 3개를 각각 획득했다.

특히 도대표로 선발된 양수근 선수 및 유규일 선수는 20일부터 22일까지공주에서 열리는 문화관광부장관 배 전국학생역도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일동중 동메달 수중발레 종목 구슬, 구한영

## 수중발레 종목 구슬, 구한영

일동중학교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스위밍)팀이 지난 8일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열악한 환경가운데에서도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동중학교 수중발레팀은 심유명 코치가 지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제32회 해군참모배 전국수영대회에서는 일동중고 추봉중, 유미나 팀이 고등부 듀엣 부문에서 동메달을 획

득했고 중등부 구슬, 구한영 팀도 중등부 듀엣부문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을 지도한 심유명 코치는 "수영장을 운영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수영장 운영을 그만둔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우수한 선수들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 "先賢들의 업적 계승에 앞장설 터"

## 제25대 抱川市 儒道會長에 정기용씨

지난달 23일 유림회관에서 열린 제25대 포천시유도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抱川市儒道會 소홀음지회 정기용 지회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정 회장은 24대 양재창회장에 이어 3년동안 포천유도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는 아버지 정창화씨에 이어 한 집안에서 2대째 유도회장을 맡게 되는 것이어서 더욱 화제다. 정기용 회장은 포천시작목협동조합장, 화산서원 원장, 총목단 총무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소감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에

게 심부름하라는 심정으로 기회를 주신 것 같다. 농촌운동을 하느라 본격적으로 포천유림에 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선배들이 해 온 일들을 계속 보아왔다. 정말 유도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선배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이다.

-儒道會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유도회란 공자님의 학문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유림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 세대가 갈수록 경

료호친사상이나 윤리, 도덕이 퇴보해 각종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역점 사업은?  
=유림의 활성화가 가장 큰 과제이다. 유림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또 학생유도회가 현재까지 조직되고 있지 않다. 학교에 가서 유도회의 정신을 불어 넣고 맥이 끊기지 않도록 후계자를 육성하는 일에도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25대 포천시유도회장에 오른 정기용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항상 유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학교체육의 현장 5

# 抱川高等學校 베드민턴부

지난 4월25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2004아시아 베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베드민턴 대표선수인 전재연(포천고 졸)선수가 여자 단식 우승을 했다. 남보가 전해졌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방수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8년만의 기다림 끝에 다가온 우승소식이였다.

포천고등학교(교장 석도형) 베드민턴부는 한국 베드민턴계의 대를 이어가는 선수를 만들어 내는 베드민턴의 산실이다.

1981년 베드민턴부의 창단 이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많은 국가대표선수를 육성해 오고 있다.

93년도 졸업생 신재은 선수, 94년도 졸업생 차운숙 선수, 2000년도 졸업생 김지연 선수, 2001년도 졸업생 전재연 선수, 2003년도 김나래 선수, 2004년도 황혜연 선수 등 매년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다.

전재연 선수는 국내랭킹 1위이며, 세계랭킹 8위에 올라 있다. 전재연 선수의 계보를 이을 황혜연 선수도 주목할 만한 선수이다.

련방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포천시 초,중,고 베드민턴 선수들은 포천시 공설 운동장내의 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을 한다. 또한 포천중 학교(교장 차태남)의 배려로 포천중 학교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훈련을 하기도 한다. 포천시에서는 포천의 베드민턴의 육



# 베드민턴 강국의 산실을 찾아서

석도형 교장, 안성규 감독, 이승영 코치 등이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 선수로는 2학년이 이현진 선수(국가대표, 주니어 국가대표), 이정민 선수 등이 있다. 1학년에는 홍수정 선수(주니어 국가대표), 최아름 선수(주니어 국가대표), 임미선 선수, 박희정 선수 등이 활약을 하고 있다.

포천고의 베드민턴 실력이 우수한 바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한 체계적인 훈

성차원에서 포천시청 베드민턴 실업팀을 금년 6월17일 창단식을 가졌다. 이러한 연유로 학생선수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안성규 감독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학생선수 중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한 선수가 많은데 포천시 차원에서 후원자, 또는 스폰서를 연계해 준다면 선수들이 훈련에 더욱 매진하여 훨씬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선수는 정규수업을 다 한 후에 운동을 하고, 중학생 선수는 정규수업 이후에 한시간에서 두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오전수업, 오후 훈련이라는 틀 안에서 훈련을 한다. 시합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는 일주일 이내로 강화훈련을 한다.

대한민국 베드민턴의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포천고등학교에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베드민턴 전용구장이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아 포천중학교, 포천 실내체육관 등을 전전하며 운동을 한다. 포천시에 동호인만도 5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베드민턴 국가대표의 산실에 걸 맞는 전용구장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해본다.

안성규 감독은 지면을 통해 "포천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라. 기분이 잘 갖춰진 학생, 선수가 되어 달라. 사람 됨됨이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말로 선수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전했다. 석도형 교장은 "잘 하는 학생보다는 열심히 하는 학생, 이기려는 선수보다는 이기려고 노력하는 선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주) 오리표 (싱크) 주방가구

## 싱크대,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취급 !!!

### 인간중심의 부엌문화를 창출하는

### "오리표 주방 가구"



###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 설계 무료 A/S 를 상담 하여 드립니다.